

## 최근 필리핀 경제성장 호조 배경 및 전망

작성자 : 신민금 (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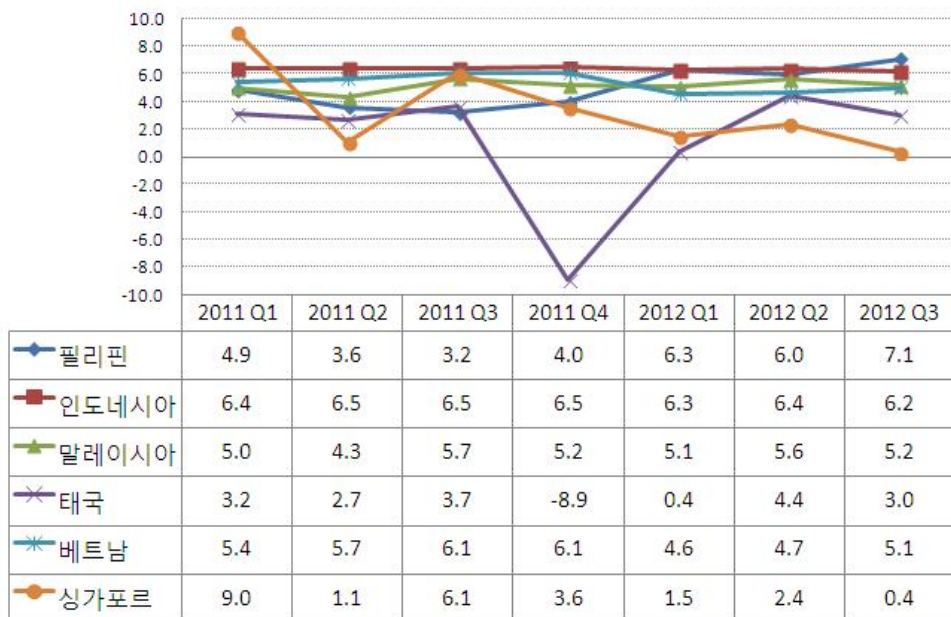
작성일 : 2013년 1월 28일

- 베트남, 인도네시아 등 빠르게 성장하던 주변 신흥국에 비해 경제성장이 다소 더뎠던 필리핀이 최근 이례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- 필리핀은 2012년 1~9월에 6.5% 성장함에 따라 ASEAN-6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음.

그림 1. 동남아 주요국의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 추이

(단위: %)



자료: 필리핀중앙은행, 글로벌인사이트.

- 2012년 1~9월 필리핀 경제가 비교적 가파른 성장세를 나타낸 배경으로는 전년동기간대비 민간소비와 정부지출이 증가한 점을 들 수 있음.

- 위 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소비 규모는 약 1,380억 달러로, 전년동기간대비 약 8.9% 늘어났으며 이주노동 송금액이 이를 뒷받침하였음.
  - 같은 기간 이주노동 송금액 유입 규모는 약 156억 달러로, 주요국의 경기 악화에도 불

구하고 전년동기간대비 5.5% 증가하였음.

- 필리핀 정부지출 규모는 약 200억 달러로, 전년동기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해당 자금은 주로 빈곤퇴치 및 사회개발 프로그램인 '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' 지원,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에 사용됨.

표 1. 필리핀의 GDP 구성요소별 규모(2012년 1~9월)

(단위: 백만 달러, %)

구성요소	규모	증가율(전년동기간대비)
민간소비	138,204	8.9
투자	14,316	6.3
정부지출	20,244	18.6
수출	52,705	9.5
수입	58,798	4.2

주: 페소로 표시된 항목은 저자가 달러로 환산함(2013년 1월 24일 기준 달러당 40.64페소).

자료: 필리핀중앙은행, 필리핀통계조정위원회(NSCB), CEIC, 글로벌인사이트.

■ 주요 경제전망기관은 필리핀이 2012년에 6%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2013, 14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전망한 바, 우리 기업은 내수시장 진출,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에의 참여 등을 통해 필리핀과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.

- 막대한 이주노동 송금액을 바탕으로 민간소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우리 기업은 필리핀 내수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할 수 있음.
- 필리핀 정부는 열악한 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2016년까지 80여 개의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를 PPP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어서 우리 기업이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.

표 2. 주요 기관의 필리핀 경제성장률 전망치

(단위: %)

전망기관	일자	2012년	2013년	2014년
글로벌인사이트	2013.01.20	6.0	4.5	4.8
EIU	2013.01	5.9	5.8	6.5
세계은행	2013.01	6.0	6.2	6.4
유엔	2013.01	6.2	5.4	5.5

자료: 글로벌인사이트, EIU, 세계은행, 유엔.

〈자료: 국내외 언론 및 분석자료〉